

복식에 나타난 하이퍼텍스트의 조형적 특성

권 정 숙[†]

경북대학교 의류학과

Plasticitic Characteristics of Hypertext in Costume

Jung Sook Kwon[†]

Dept. of Clothing & Textil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04. 8. 26. 접수)

Abstract

Hypertext is a web form consisted of HTML(hypertext markup language) which is used in Internet. Hypertext in costume is the product of modern industrial society. Hypertext is not a mechanical technique that enlarges external capacity of human beings. It is rather a motif that extends the internal ability of human beings. It brings about the social innovation by extending the expression realm of costume and providing the various views of recognition. This study regards costume not as an artistic work but as a text which interacts in the open relationship of human body, society and culture and causes dynamic generation of meaning. This study distinguishes Plasticitic Characteristics of Hypertext in Costume with intertextuality, rhizome, interactivity in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hypertext which is a typical trait of digital culture of openness and variousness. In conclusion, this study clarified plasticitic value of modern costume, which expresses vague isms and the pargidm of multi-typed culture most sensitively and condretley, and expres-sional forms in relation with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hypertext.

Key words: Hypertext, Intertextuality, Rhizome, Interactivity; 하이퍼텍스트, 상호텍스트성, 리즘, 상호 작용성

I. 서 론

정보와 기술의 발달로 다변화된 현대 디지털 사회는 문화영역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전혀 새로운 것들의 탄생을 갈구하는 문화적 코드를 탄생시켰다. 이와 같은 현상은, 참 아니면 거짓이 결정되는 이원화된 기존의 인식 사고로는 해석하기 힘든 현대 사람들의 다양화되고 단편화된 기호와 욕구를 대변한다. 21세기 디지털 사회는 하이테크 미디어로 대표되는 기술적 도약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지식’이 사회와 경제에 핵심을 이루는 신디지털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미디어 자체가 인간의 사고 방식과 생활 양식을 변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는 뜻으로 맥루한이 정립한 “미디어는 메시지다”라는 말처럼 인간의 삶, 사고구조, 인간관계의 필연적 변화를 요구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의 힘에는 미디어 기술의 도약을 빼놓을 수 없다. 하이퍼텍스트(Hypertext)는 인터넷에서 이용되는 HTML(Hyper Text Markup Lan-guage)로 이루어진 웹문서 형식으로서, 문서 작성의 형식을 벗어나 다양한 미디어의 활용과 구조적 특성의 이론적 관심이 주목되는 중요한 사유원리를 제공하고 있다.

복식은 문화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양식으로써 사회·문화적인 인식 특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다른 문화영역과 관련된 상호작용성의 특성을 가지며 유행,

[†]Corresponding author
E-mail: nicegina@hanmail.net

컨셉 등의 패션메시지를 형성하는 직접적인 표현과 해석이 요구되는 조형 분야이다. 복식에 있어서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은 인간의 외적 능력을 확장하는 기계중심의 기술이 아닌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내적 동력으로 작용하여 기존의 복식 표현영역의 확장 과 다양한 인식의 관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식을 인체, 사회, 문화라는 개방된 구조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의미의 무한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로 파악하고, 개방성과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문화의 특성인 하이퍼텍스트의 개념과 연결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내용으로는 복식에 있어서 하이퍼텍스트 이론의 개념과 구조적 특성을 적용시키기 위하여 먼저, 복식을 디자이너의 독창성에 의해 창조된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텍스트적 이미지들이 결합하고 충돌하는 장소이며, 사회, 문화, 예술 등의 다양한 파편들을 섬유조직으로 하여 성립된 복합체의 텍스트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텍스트 이론 가운데 디지털 문화인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그물형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방성과 다양성의 구조적 특성이 설명될 수 있는 상호텍스트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대 복식의 조형적 가치와 표현 특성을 하이퍼텍스트의 개념과 구조적 특성을 연결시켜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하이퍼텍스트 이론의 근간을 형성하는 텍스트 이론과 포스트구조주의에 관련한 인문학, 철학, 사회학, 건축, 미학 관련 이론서를 참고하였으며 현대 복식에 나타난 하이퍼텍스트의 조형 가치와 표현 특성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국내·외의 패션 관련 서적과 패션잡지를 고찰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용어의 정의

(1) 하이퍼텍스트는 컴퓨터 기술과 연관된 개념으로서, 비연속적으로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노드(Node)들로 구성된 전자적 텍스트이다. 노드라는 것은 정보의 구성단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 노드의 내용 안의 한 영역을 앵커(Anchor)라고 하고 앵커와 앵커 사이의 연결을 링크(Link)라고 한다. 그리고 링크들에 의해 상호연결된 노드들을 웹(Web)이라고 한다.

(2)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크리스테바에 의

해 도입된 용어로서 텍스트가 자율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출발하며, 두 개의 극단적인 텍스트를 구별하여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와 개체간의 상호관계 맺음에 의해 발생하는 가산적 생산물과 보충의 이론이 적용되는 것이다.

(3) 리좀(Rhizome)은 들뢰즈와 가타리(Guattari, F.)의 「천(千)개의 고원」에서 등장하는 개념으로 중심없이 서로 얽혀있는 줄기 식물의 뿌리 형태를 지칭하는 조직 형태를 의미한다(이진경, 2002).

(4)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변화와 움직임이 독립하여 있지 않고 양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2. 텍스트(Text) 이론

크리스테바(Kristeva, J)에 의한 텍스트의 정의는, 직접적인 정보를 목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말을 그 이전의 또는 같은 시기의 다양한 언표로 관계 지음으로써 언어의 질서를 재구성하는 초언어학적인 장치이다(최현무, 1984). 텍스트는 저자와 해석자가 만나는 기호론적 담론의 장으로 현실에 존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의미를 파악해 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읽는 행위 내에 나타나 작용하고 의미가 생성되어지는 새로운 주체를 요구하는 비결정적 의미의 장(場)인 것이다. 따라서 텍스트라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한계도 갖지 않는다(민성원, 최유진, 1998). 데리다(Derrida, J)는 새로운 철학적 해독의 원리로 텍스트라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텍스트는 그 내적인 구조 안에서, 다른 텍스트와의 연관 작용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고 다양하게 해석되어지며, 그 해석을 통하여 숨겨져 있거나 감추어져 있던 내용이나 의도가 드러나게끔 되어있다(Kimmerle, 1996). 작품은 본질의 단편으로서 책들의 공간 일부를 점유하지만 텍스트는 방법론적인 영역이다(윤난지, 1988). 텍스트란 개념은 작품의 완결성을 의심하며 표상체계에 유동적이고 불확정적인 인식론에서 출발한다(이상철, 2003). 이러한 특성이 구조주의에서 포스트구조주의로의 이행을 설명하는 '작품에서 텍스트로의 움직임'으로 설명될 수 있다(박겨용, 1993). 포스트구조주의는 모든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의 산물을 구조를 가진 의미체계로 간주하고 모든 인간 행위와 그 결과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의 체계를 분석하는 구조

주의(김종일, 1999)에 가치체계의 근간을 두고, 전체적인 구조보다는 개체의 특성과 가치를 중시하고 사고의 경직화 및 문학과 학문의 과학화를 배격하며 이성중심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시·공간적으로 개방된 텍스트 안에 상호작용하는 의미의 무한한 움직임을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복식을 작품이 아닌 언어학 방법론인 텍스트로 본다는 것은 복식을 언어체계로 파악하고 기호학의 연구 대상으로 확장하여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다. 문학이론인 텍스트의 인식을 복식에 적용시키는 점에서는 복식을 하나의 독립된 예술 텍스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체, 사회, 문화라는 상호연관성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바르트(Bartes, R)는 독자를 텍스트의 생산자로 인식하여 역동적 역할을 강조한다(김성곤, 1988). 문학 작품에서 사용하는 텍스트들은 인용, 주석 등의 직접적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 작품에서 이미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는 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작용과 텍스트화(化)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 이것은 복식이 디자이너의 독창성에 의해 창조된 유일무이한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근원적 독창성이 아닌 여러 텍스트적 이미지들이 결합하고 충돌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지는 것을 말한다. 그 장소인 복식은 의미를 고정시키는 것이 아닌 의미작용을 발화하는 공간이며 독자의 개념 또한 디자이너와 착용자로 혹은 디자이너와 관객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다. 텍스트로서의 복식은 고정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차이와 관계에 의한 임시적인 불안정한 의미로 존재한다(김원갑, 1991). 독자적 텍스트에서 강조하는 역동성의 의미는 수많은 텍스트로부터 유래한 내용의 파편들을 섬유조직으로 하여 성립된 복합체로 해석함과 동시에 텍스트적 구조의 특성을 복식 표현형식으로 활용하는 하는 것에 상응한다.

3. 하이퍼텍스트 이론

1) 디지털 사회와 포스트구조주의

하이테크 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사회는 그 기술적 도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문화는 합리주의가 주도했던 근대 모더니즘의 사고와 산업 사회의 대량생산과 표준화를 벗어난 개성적이고 적극적인 '개인'에 주목하게 되는 탈근대의 주체로서, 근대적 구조의 해체를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의 추세는 물리적인 생활 영역과 행태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부분까지 우리 주변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디지털 문화의 현상은 먼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그물형의 네트워크(Network)를 기반으로 개방성과 상호작용성을 특징으로 근대의 중심으로부터 이탈된 주체와 구조의 해체를 반영하고 고정된 관점이나 갇힌 사고에서 벗어나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는 '유동적 문화'의 특성 및 시간과 공간 개념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특징들은 개체와 구조간의 관계성과 열린 사고로의 개념 전환의 특성을 가지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사유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포스트구조주의는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의 산물을 자족적이고 자기 결정적인 구조를 가진 의미체계로 간주하고 모든 인간 행위와 그 결과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의 체계를 분석하는 구조주의에 가치체계의 근간을 두고 있다.

2) 하이퍼텍스트성의 개념

하이퍼텍스트는 디지털 정보 사회의 중심 매체인 인터넷이라는 가상 공간을 형성하는 핵심적 구성원리를 형성하고 있다. '해석가능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텍스트 의미에서 텍스트내의 텍스트로서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을 활용한다. 하이퍼텍스트는 인간의 연상적 사고를 집약하여 조합과 분류를 구현하는 텍스트 양식을 취하며 문자 시대의 특성인 선형적 텍스트가 아닌 전자 네트워크의 비선형성을 특징으로 한다(이상철, 2003).

Landow(2001)는 "하이퍼텍스트는 전자적 텍스트의 한 형태, 현저하게 새로운 정보기술, 그리고 생산양식을 가리킨다."라고 하였다. 하이퍼텍스트의 출현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Poetics)」에서 언급한 (1) 고정된 연속(Fixed sequence) (2) 확정적인 시작과 끝(Definite beginning and ending) (3) 특정한 양 개념의 확정(Certain definite magnitude) (4) 통일성과 전체성(Unity & Wholeness)의 개념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도록 만들었다(정형철, 2003). 하이퍼텍스트 이론과 포스트구조주의는 중심과 주변, 위계질서, 선형성 등에 근거한 체계 대신에, 다선형성(Multilinearity), 노트, 링크, 네트워크로 된 체계를 수용하여 탈중심적이고 이질적인 것들의 연결에 의해 생겨나는 구조적 특성들의 공통점을 가진다. 하이퍼텍스트의 특성은, 포스트구조주의의 중요한 이론인 푸코(Foucault, M)의 근대적 주체개념을 부정하고 탈중심성의 개방성을

주장하는 타자(他者) 이론(김옥동, 1997)과 들뢰즈(Deleuze, G)의 유목주의(Nomadisme)와 리즘의 다양성과 연결 및 균열 이론과도 연관된다. 하이퍼텍스트는 개방적이고 양방향적이며 독자를 텍스트의 능동적인 생산자로 만드는 바르트의 '저자적' 텍스트적 특성을 가진다(Kristeva, 1984). 데리다(김성도, 1996)는 텍스트의 불확정성, 개방성과 상호텍스트성 등을 강조하며 새로운 텍스트성을 모색하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최근의 디지털 정보 문화에서 하이퍼텍스트성은 잡종(Hybrid) 혹은 이질적인 혼성(Heterogeneity)으로 이해할 수 있다(정형철, 2003). 기존의 텍스트가 선형적인 구조로 인쇄되었다면 하이퍼텍스트는 동적으로 생성, 소멸될 수 있는 이러한 연결점들에 의한 무작위적 경로를 통해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이퍼텍스트성은 기존의 이분법적 질서와 규칙에 대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일탈과 혼성의 유희적 다양성을 표현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

3) 하이퍼텍스트의 구조적 특성

하이퍼텍스트는 상호교차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개방적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하는 의미작용에 의해 다양성과 역동성으로 표현되는 상호텍스트성과 리즘적 접속 원리, 그리고 상호작용성의 구조적 특성을 지닌다.

하이퍼텍스트의 상호텍스트적 특성은 모든 텍스트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재결합이라고 볼 수 있다(김옥동, 1997). 그러므로 순수한 면에서의 창작이 아니라 기존의 텍스트들을 서로 긴밀하게 연결함으로써 재결합하여 새로운 창작을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없이 편재하는 형태로 퍼져가는 네트워크의 하이퍼텍스트 형상은 중심없이 서로 얽혀있는 줄기형태로 얽힌 다양체적인 식물 유형인 들뢰즈의 리즘적 사유체계와 유사하다(권정숙, 2004). 특징적인 조직 형태는 이질적인 선들이 상호교차하고, 다양한 흐름과 방향으로 뻗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하이퍼텍스트와 리즘은 접속과 이질성의 공통된 특성으로 비종결적이며 위계질서가 아닌 무질서에 가까운 형태로 존재하며 무한대의 비선형적 연결 가능성과 완전히 다른 정보로의 변환 결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상호작용성이란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변화와 움직임이 독립하여 있지 않고 서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의 다양한 변화 체형과 텍스트 자체의 형성과정에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동적 자세를 요구하는 특성을 지닌다.

III. 복식에 나타난 하이퍼텍스트성의 표현 양식적 특성

복식에 나타난 하이퍼텍스트성의 구조적 특성은 상호텍스트성, 리즘적 접속, 상호작용성의 방법으로 표현되었다.

1. 상호텍스트성

복식의 상호텍스트적 특성은 다른 텍스트 즉, 다른 스타일, 문화, 예술, 패션과 비(非) 패션의 경계에서 병행(並行) 인용의 방법으로 전환하여, 복식이 가지



Fig. 1. Vivienne Westwood, '04-05 F/W Paris Collections



Fig. 2. Vivienne Westwood, 1991-92 F/W 'Dressing Up' Collections



Fig. 3. Alexander McQueen, '01-02 F/W Paris Collections

는 의미의 다양한 해석과 표현의 가능성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제한되고 규격화된 미적 범주를 벗어나 감각적 자극과 새로운 시도에 대한 포용력 있는 개방성과 미적 유희의 자율성을 추구한다.

1) 스타일의 상호텍스트성

복식이 가지는 사회적 규범인 시간, 공간, 목적의 관계성에서 '적절함'의 틀과 성, 연령, 문화, 민족의 영역적 경계를 파괴하였다. <Fig. 1>은 소재, 아이템이 혼합되어 있으며 에스닉한 이미지와 미래주의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표현되었고 <Fig. 2>은 여성의 성적 구속을 의미하는 코르셋과 남성 성기의 직접적인 표현이 대조적인 작품이다. <Fig. 3>은 아프리카 원시종족의 전사들의 머리 장식에서 디자인 영감을 얻어 현대적인 복식 트렌드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2) 타(他) 영역과의 상호텍스트성

개체와 개체간의 상호관계 맺음에 의해 발생하는 가산(加算)적 생산물과 보충의 이론이 적용되는 복식 디자인은 다양한 표현과 풍부한 미적 근거의 확장을 지향하여 다른 영역의 요소들을 차용, 인용, 변환, 병치하는 방법들을 사용한다. 복식디자인의 변화와 발전에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되는 문화와 예술의 영역이기도 한 건축, 음악, 미술, 영화, 사진 등의 요소들이 통합되어 무대 장치, 음악, 연출, 복식의 종합 작품인 패션쇼를 구성하거나 건축과 복식<Fig. 4>, 사진과 복식<Fig. 5>, 예술과 복식 등의 상호텍스트적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2. 리즘적 접속

하이퍼텍스트 구조 특성인 리즘의 접속 원리가 잘 표현된 복식 경향으로는 혼합, 혼용, 교배, 접목 등과 함께 쓰이는 하이브리드 패션이 대표적이다. 하이브리드는 다른 종(種), 속(屬) 또는 과(科)간에 교배된 것을 말하며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던 기존의 미적 형식들이 혼합되어 '새로움'이라는 다양함의 미적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요소들의 혼합과 연결의 방식에서 리즘의 조형적 특성은 A와 B가 만나 새로운 C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A와 B는 접속 방법은 사회적 인식론적 관계성이나 총체성을 거부하고 차연, 변종, 이탈, 탈주, 역설 등의 포스트구조주의적 개념적 특성을 지니는 단편화된



Fig. 4. Alexander McQueen, '01 S/S
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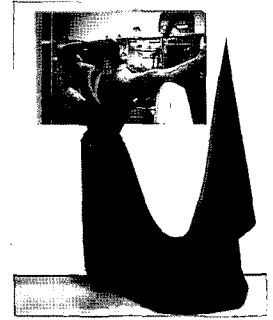


Fig. 5. Gotscho, 2003 대림 미술관, 홍보 포스터

텍스트이다. 접속의 중요한 기법으로는 패러디(Parody), 패스티쉬(Pastiche), 브리콜라주(Bricolage), 알레고리(Allegory)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다양한 영역과 방법으로 표현된다.

1) 패러디(Parody)

허치온(Hutcheon, L.)은 「패러디 이론」(1985)에서 패러디는 원작에 다소 밀접하게 근거를 둔 모방인데 유사점 보다는 다른 점에 유의하여, 모방하는 사고나 개념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효과를 산출하는 양식으로 규정하였다(Linda, 1985/1992). 그것은 대체로 원본과는 비판적 거리를 둔 창작 의도가 내포된 기법으로 한 작가, 특정 양식의 형식과 특성을 과장하거나 변형 적용하는 형태를 따른다. 현대 복식에 나타난 패러디의 의도나 효과는 원텍스트에 대한 존경심과 재해석, 친근함에서 이질감을 부여하여 새로움을 생산하는 낯설게 하기, 향수, 풍자, 키치(Kitsch)적 유머(함윤선, 2003) 등이 있다. <Fig. 6>은 예술이나 문화적 영역에서 원텍스트에 대한 존경과 작품적 특성을 재해석하는 관점에서, 원본 이미지를 변형, 모방하여 복식을 형성하는 부분적 텍스트로 인용하였다. <Fig. 7>은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으로 인한 불안한 세계정세와 황폐해진 휴머니즘의 반성으로 나타난 시사적이고 풍자적인 밀리터리(Military)로 파악할 수 있다. <Fig. 8>은 고전적 스타일의 규모 과장과 소재와 메이크업에 희극적 요소를 도입하여 불합리한 미적 취향과 유머러스한 유희성을 표현하였다.

2) 패스티쉬(Pastiche)

패스티쉬는 주체가 없는 모방이며 반복의 주체가



Fig. 6. Yoshiki Hishinuma, '04 S/S Paris Coll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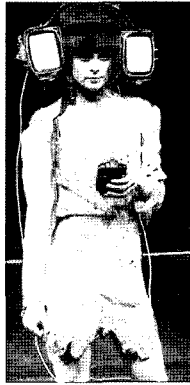


Fig. 7. Robert Cary-Williams, '04-05 F/W London Collections



Fig. 8. Christian Dior, '04 S/S Paris Collections

없는 반복으로 A, B가 만나 전혀 새로운 C가 된다는 리즘적 접속 원리에 위배되는 표절과 구분이 모호하다. 하지만, 문영대(2004)는 페스티쉬가 주체가 없는 원본성의 해체라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중요한 인식 조건하에 포스트모더니즘의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인정하였다. 복식에서는 재해석의 의도와 도전 정신이 희석된 부분적 인용과 표절, 모방의 혐의 내에서 원텍스트들을 짜깁기해서 모은 혼성모방적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지금의 패션트렌드에 하나인 절충주의 스타일과 복고풍(Retro look)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Fig. 9).



Fig. 9. Yohji Yamamoto, '03-04 F/W Paris Collections



Fig. 10. 서상영, '04 6월호 Vogue Korea

3) 브리콜라주(Bricolage)

하나의 작품에 다른 작품들로부터 차용된 부분들이 결합되어지는 브리콜라주(Bricolage)기법(김민자, 1998)은 단편화된 텍스트들을 무작위적으로 병치, 배열하였다. 상황적 맥락으로부터 이탈된 텍스트들의 접속에 의해 아이러니와 패러독스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이러한 이질성과 부적합성에 의해 형성된 복식 특성은 믹싱 모드(Mixing Mode)와 의미해석이 불가능한 난해한 해체 복식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Fig. 10>이 갖는 브리콜라주적 특성은 이질적인 소재와 아이템의 결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스타일의 점퍼 2벌이 형태 모방이나 변형 등의 회유적 조작이 없이 너무나 구별된 좌·우를 구성한다는 점이다. 이 점퍼는 구별되는 2벌의 점퍼를 인식하면서 1벌의 점퍼라는 아이러니한 진실을 인정하는 강한 자극적 효과를 유도한다.

4) 알레고리(Allegory)

알레고리의 정의는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의미한다”이며(이기정, 1997)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에 중첩하여 원래의 의미 대신 다른 의미를 첨가하는 양면성의 이중코드 개념이다. 일반화된 의미의 알레고리는, 추상적인 개념을 다른 구체적인 대상으로 다르게 표현하거나 어떤 개념을 어떤 형태의 이미지로 번역해 놓은 표현법을 말하며, 단순한 수학적 차원을 넘어 세계에 대한 인식의 틀로, 그리고 언어적·문화적 조건으로 그 현대적 위상이 확대되고 있다(정끝별, 2002). 복식에서는 ‘무엇’보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유념하면서 고전 재현을 차용하고 대중 이미지를 주체화하면서 전통과 혁신에 대한 양면적 태도를 지닌다. 알레고리는 복식영역 내에서 다양한 사조들의 양식과 시대정신을 공유하면서도 독자적인 조형적 자유를 표현하는 중요한 접속 원리를 제공한다.

<Fig. 11>과 <Fig. 12>에서는 휴머니즘에 관련된

강한 알레고리적 패션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2004년 S/S에는 무도회장의 무대 분위기와 댄서들의 춤을 통해 율동적이고 정열적인 인체를 강조하고자 했던 반면, F/W에는 두꺼운 트위드(Tweed) 소재와 차가운 광택의 새틴(Satin) 소재를 사용한 경직된 디자인 라인과 인형이나 마네킹을 연상시키는 메이크업의 모델들, 그리고 극도로 인공적인 무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 인공적인 주제에서 맥퀸이 표출하고자 하는 디자인 철학은 인간 본연에 대한 깊은 고민, 바로 휴머니즘이었다. 경직되고 인공적인 표현 내면에는 ‘인간과 생명에 대한 부정’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라 충만한 생명과 인간에 대한 존중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3. 상호작용성

복식의 상호작용성은, 작품을 제시하는 주체로서



Fig. 11. Alexander McQueen, '04 S/S Paris Collections



Fig. 12. Alexander McQueen, '04-05 F/W Paris Collections

의 디자이너와 수용하는 타자로서의 착용자와 감상자라는 구분을 지양하고 작가와 수용자, 그리고 매체에까지 이르는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최지영, 간호섭(2003)과 한윤숙(2000)은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이라는 신인류의 문화와 복식의 관계성 연구를 통하여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복식’의 개념으로 디지털 복식을 중요한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1) 반응성

복식에 표현된 반응성은 텍스트 내부에 포함된 메카니즘과 그것을 보는 감상자가 체험하게 되는 지각 반응과 외부환경의 자극에 복식 텍스트의 시각적·동적 형태가 변화하는 과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한다. <Fig. 13>과 같이 순수한 시각적 반응을 표현하는 시각 효과가 복식디자인에 적용되었으며 <Fig. 14>는 외부환경에 대한 자극에 반응하는 형태적 변화를 연출하여 일시적인 지각 반응으로 변화 과정에 대한 시각적 주목성이 높다.

2) 가변성

텍스트로 파악되는 복식의 요소들은 구성되는 텍스트인 복식에서 전혀 새로운 의미로 작용되거나 텍스트가 구성되어지는 과정이나 착복 시에 발생하는 일시적 변환의 특성을 나타낸다. 복식에는 예술 작품과 구별되는 목적성에 의해서 착복의 방법과 체격적 특성에 의해 복식 자체의 형태미는 달라 질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의 텍스트의 자율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 변형의 특성은 변화가 일시적이며 A에서 B로의 변형 시에 A의 형상은 B형상 내에 내재된 기능과 형태로 은폐되어진다. 특히, 복식의 텍스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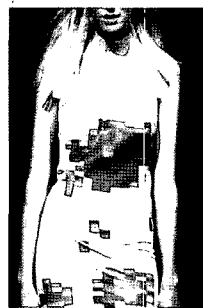


Fig. 13. Hussein Chalayan, '02 The Supermodern Wardro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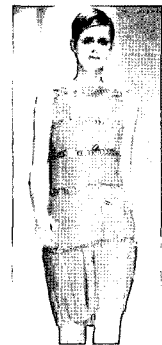


Fig. 14. Paco Rabanne, '04 S/S Paris Collections

가변성은 퍼포먼스나 이벤트 형식이 부각되고 있는 패션쇼에서 자주 등장하는 특성으로, 실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이너의 작품 컨셉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착장방식에 따라 다양한 조형미와 잠재된 기능성의 표현이 가능한 이동성(mobility)의 특성을 중심으로 착용자의 참여와 외부적인 여건에 의해 다른 형태와 기능으로 변형될 수 있다. 장애란(2002)은 실험적인 의미에서, 현대 복식을 ‘단순히 입는 것’이라는 개념을 탈피하여 ‘형태 변환가능 형태’, ‘다양한 기능성의 표현’이라는 관점으로 설명하였다. <Fig. 15>는 2001년 S/S C.P.Company의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소재의 재킷으로 필요에 따라 공기를 주입하여 팔걸이 의자로 형태가 변할 수 있다. 이 재킷을 구성하는 텍스트인 의복으로서의 재킷과 팔걸이 의자의 이질적 요소들은 옷과 의자가 필요한 외부적 환경의 영향으로 공기 주입이라는 착용자의 행위를 통하여 입을 수 있는 의자, 앉을 수 있는 옷이라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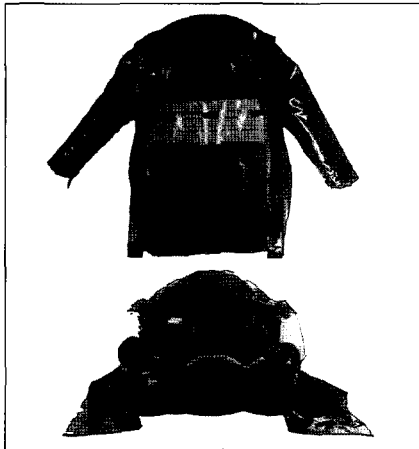


Fig. 15. C.P.Company, '01 The Supermodern Wardrobe



Fig. 16. 승무원 유니폼, New Nomads

새로운 의미 형태로 변환되었다.

3) 기술과 복식의 작용성

현대 복식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성은 디지털 기술이 문화와 예술을 지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문화적 배경속에서 테크놀러지와 복식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슈퍼모던 복식(supermodern wardrobe)이 대표적이다. 슈퍼모던이라는 용어는 아우제(Auge)가 개인주의, 정보, 공간의 과잉에 의해 형성되어진 현대의 상황을 설명한 인류학적 용어이다. 여기에서 설명된 공간은 장소가 아닌 인간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의미적 공간을 의미한다(Bolton, 2002). 최지영, 간호섭(2003)과 한운숙(2000)은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이라는 신인류의 문화와 복식의 관계성 연구를 통하여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복식’의 개념으로 디지털 복식을 중요한 경향으로 분석하였다. 디지털 유목민의 특성이 표현된 복식으로는 테크놀로지가 단순히 의복의 부속물처럼 첨가된 것이 아니라 승객 및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LCD 스크린과 마이크로폰이 내장된 비행기 승무원의 유니폼<Fig. 16>과 같이 컴퓨터+통신+디자인+복식이 통합된 입을 수 있는 컴퓨터(wearable computer)가 대표적 경향으로 나타났다.

IV. 결 론

디지털 사회는 문화영역간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새로운 것들의 의미를 생성해 내는 하이퍼텍스트의 문화적 코드를 탄생시켰다. 인간의 외적 능력을 확장하는 기계중심의 기술적 용어인 하이퍼텍스트는 복식의 미적 다양성과 열린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적 원리를 제공하였다. 복식을 작품이 아닌 인체, 사회, 문화라는 개방된 텍스트 안에서 상호작용하며 의미의 무한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텍스트로 파악하고, 하이퍼텍스트적 개념과 구조의 특성을 현대 복식의 조형적 가치와 표현 특성에서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텍스트로서의 복식은 고정된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차이와 관계에 의한 임시적이며 불안정한 의미로 파악되고, 다양한 텍스트로부터 유래한 파편들의 섬유조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복식의 텍스트적 특성은 성, 연령, 민족, 문화, 예술, 사회의 여러 가지 다른 텍스트와 개념을 공유하는 관계에서 파악될 수

있는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

둘째, 이질적인 것들이 상호교차하고, 다양한 흐름과 방향으로 뻗어가는 하이퍼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을 중심없이 서로 얽혀있는 줄기 식물의 뿌리 형태를 지칭하는 들뢰즈의 리좀 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리좀적 접속은 비종결적이며 무질서에 가까운 형태로 존재하고 다른 정보로의 변환 결합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을 복식의 형태 발상과 해석에 인식 근거로 고찰하였다. 리좀의 원리인 접속, 이질성, 다양성, 비의미적 단절, 지도그리기와 전사술 등의 원리가 잘 표현된 패션 경향으로는 혼합, 혼재, 교배, 접목 등과 공작 함께 쓰이는 하이브리드(Hybrid) 패션이 대표적이며 구체적인 접속 방법으로는 패러디, 페스티쉬, 브리콜라주, 알레고리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복식 경향들은 인용, 모방, 창조의 개념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의미의 차연, 이질적인 요소들의 결합,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지던 기존의 미적 형식들이 혼합되어 '새로움'이라는 다양함의 미적 양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셋째, 복식의 상호작용적 특성은 인체, 사회, 문화, 과학 기술이라는 개방된 텍스트 안에서 변화하고 반응하는 텍스트로 파악될 수 있다. 복식과 디자이너, 착복자, 감상자가 서로 작용하고 영향을 끼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의 변화와 움직임이 독립하여 있지 않고 서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상호작용성의 방법이 반응성과 가변성, 그리고 기술과 복식의 작용성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하이퍼텍스트의 조형적 측면에서 살펴본 복식은, 창조적 작품이라는 한정된 공간과 고정된 시간성을 부정하고 디자이너의 시대적 정신과 문화적 분위기를 담아내는 일종의 유기적 체계로 파악할 수 있다. 또, 복식 텍스트는 의미의 생성과 변화 과정을 수행하며, 하이퍼텍스트적 사고에 의해 복식 텍스트의 표현 영역의 확장 조형적 가치의 다양한 해석과 열린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인식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에서는 하이퍼텍스트의 문화적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이 직접적으로 표현된 복식 경향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정숙. (2004). 패션 일러스트레이션에 나타나는 들뢰즈의 포스트구조주의적 특성 연구, *복식*, 54(4), 86-93.
- 김민자. (1998). 20세기 패션에 나타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연구(2), *복식*, 38(3), 383.
- 김성곤. (1988). *탈구조주의의 이해*. 서울: 민음사.
- 김성도. (1996). *그라마톨로지*. 서울: 민음사.
- 김옥동. (1997).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구조주의*. 서울: 현암사.
- 김원갑. (1991). *현대 건축 이론에 미친 아방가르드 이론과 과학패러다임의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종일. (1999). *후기구조주의적 인식에 따른 건축형태의 해석과 표현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랜도우. (1997). *Hypertext 2.0*. 여국현 옮김 (2001). 서울: 문화과학사.
- 문영대. (2004). 포스트모던 패러디 현상 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13(3), 322.
- 민성원, 최유진. (1998). *현대 사상*. 서울: 우석.
- 박거용. (1993). 포스트모더니즘 비판. *인문과학연구*, 1, 67-91.
- 윤난지. (1988). *모더니즘 이후, 미술의 화두*. 서울: 눈빛.
- 이기정. (1997). Hawthorne의 알레고리와 아이러니의 재해석. *현대영어영문학*, 14, 162.
- 이상철. (2003). 하이퍼텍스트의 이론에 대한 고찰. *국어 교육*, 11, 167.
- 이진경. (2002). *노마디즘 I*. 서울: 휴머니스트
- 장애란. (2002). Hussein Chalayan의 실험적 디자인. *복식*, 52(2), 91-107.
- 정끝별. (2002). 21세기 시문학의 미학적 특성과 시교육 방법론(1). *문학교육학*, 9, 226-227.
- 정형철. (2003). *하이퍼텍스트 이론*.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최지영, 간호섭. (2003). 잡노마드의 문화와 패션스타일에 관한 연구. *복식*, 53(1), 129-141
- 최현무. (1984). *프랑스 현대 비평의 이해*. 서울: 현암사.
- 최혜정, 임영자. (2001). 20세기말 현대 패션에 나타난 다문화주의 현상에 관한 연구. *복식*, 51(2), 149-167.
- 키멜레. (1993). *데리다*. 박상선 옮김 (1996). 서울: 서광사.
- 한윤숙. (2000). *21세기 디지털 유목민 문화에 나타난 현대 패션 디자인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함윤선. (2003). 디지털패러디의 사회적 의미와 미래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9(4), 5.
- Barthes, R. (1997). *텍스트의 즐거움*.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Bolton, A. (2002). *The supermodern wardrobe*. London: V&A Publication.
- firstview photo list. (1999). *firstview*. Retrieved June 6, 2004, from <http://www.firstview.com>
- Linda, H. (1985). *패러디 이론*. 김상구, 윤여복 옮김 (1992). 서울: 문예출판사.